

빠르게 (4.0 낱말/초)

네 번째 미래: 감정 충돌

늦은 밤 후상이 기숙사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석은 썸틀 앞에 앉아서 교내 사설 게시판(BBS)을 둘러보고 있었다. 후상이 들어오자 영석은 모니터에서 눈을 돌려 후상에게 말을 꺼냈다.

영석: 후상아, 너 유선이랑 무슨 일 있었어?

후상: 유선이랑? 아니, 뭐 별일 없었는데. 왜?

영석: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말이야. 근데 진짜 아무 일 없었어?

후상: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유선이가 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울기는 했지.

영석: 야, 울었는데, 그게 아무 일 없는 거냐? 이 무딘 녀석아.

후상: 그런가? 그게, 그냥 별 일 아닌 줄 알았지.

영석: 근데, 괜 왜 운 건데?

후상: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후상이 어제 있었던 일의 이야기를 꺼냈다. 후상과 유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후상은 유선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다. 거의 날마다 걸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후상이 유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지는 후상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문제는 둘의 전화하는 태도가 꽤나 달랐다는 점이다. 후상은 늘 인간관계에 적극적이었다. 영석과 후상이 친구가 된 것도 후상이 먼저 귀찮을 정도로 영석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이는 유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늘 전화를 거는 사람은 후상이었고, 유선은 늘 전화를 받는 쪽이었다. 통화는 한 번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 하곤 했다. 카이스트 구내전화를 이용하다보니 통화요금도 내지 않았으니 통화에 시간제한도 없었던 셈이다.

그저께 있었던 일이다. 여느 날처럼 후상은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구내전화를 들고 유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선: 여보세요?

후상: 유선아 안녕?

유선: 후상이구나.

후상: 응. 뭐해?

유선: 그냥 있지 뭐. 후상아, 근데 나 할 말이 있는데…….

후상: 응? 뭔데?

유선: 그게, 나 이제 너가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

후상: 어? 왜?

유선: 아니, 그게 오해는 하지 말구.

후상: 아니, 왜? 왜 그러는데?

유선: 이렇게 너랑 전화 하는 거 부담스러워. 너랑 나랑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후상: 그냥 친구끼리 전화 하는 게 뭐 어때서.

유선: 야, 무슨 친구끼리 날마다 전화를 한 시간씩 하나.

후상: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

유선: 그리고, 너는 공부를 잘 하니까 그렇지. 나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단 말이야.

후상: 너도 잘 하잖아.

유선: 너는 숙제도 금방 하고, 수업도 다 알아들으니깐 그렇지. 난 두꺼운 책을 한참 읽어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난 시간이 부족해.

후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친구랑 전화도 못 하나?

유선: 암튼, 이제 전화하지 마. 알았지? 그럼 끊는다.

후상: 야,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끊었네.

이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그 다음날, 후상은 유선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후상은 유선에게 전날 있었던 전화 통화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했고, 감정중심적인 유선에게 그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선의 대답은,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전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냐?” 라는 식이 되었다. 후상은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유선에게 이런 것은 친구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때였다. 유선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후상은 여전히 유선이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유선과 영석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잠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유선: 영석아, 너 후상이랑 방 같이 쓰잖아.

영석: 응, 왜?

유선: 어제 후상이 봤어?

영석: 응, 방에서 밤에 잠깐 봤지.

유선: 뭐라고 하지 않아?

영석: 아니? 글썄.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유선: 아, 아니야.

영석: 아, 뭔데. 무슨 일 있었구나?

유선: 자꾸 물어보지 마.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난 말해버린단 말이야.

영석: 하하. 그래 알았어. 후상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유선: 야! 너 물어보면 안 돼.

영석: 그래, 알았어.

물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영석은 후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후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석은 생각에 잠겼다. 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다. 전화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얼마나 자주 걸고 얼마나 오래 통화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친구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참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누가 그런 것을 정해준 적도 없으니 말이다. 역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이해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후상: 야, 너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무슨 생각 하나?

영석: 아, 그냥 갑자기 이런 저런 생각이 나서 말이지. 그나저나 너랑 유선이는 참 많이 다르긴 다르구나.

후상: 많이 다르지.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것도 많지만 배우는 것도 많지.

영석: 맞는 말이네.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후상: 응? 뭐?

영석: 사람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후상: 너 또 무슨 이상한 생각 하나.

영석: 아니,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말이야, 수학적으로 표현된 상태를 알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다면,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을 거고.

후상: 뭐, 안 되지는 않겠지.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성격이나 특징만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영석: 혹시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파운데이션(Foundation)이라고 알아?

후상: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는데, 로봇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잖아. 파운데이션은 안 읽어봤지.

영석: 안 읽어봤구나.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설에 보면, 심리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거든. 그게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이 모인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후상: 음. 꼭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와 백 번 던질 때의 차이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영석: 뭐, 비슷해. 그런데 주사위는 한 번 던질 때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1/6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심리역사학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지에 대한 확률을 모르고 있는 거지.

후상: 아, 그럼 이항분포가 다수가 되어서 정규분포가 된다는 것과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

영석: 그래서 말인데, 각각의 확률을 모르는데 다수의 분포를 아는 게 가능한 건가?

후상: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석: 그런가?

이들의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다. 유선과 후상 사이에 있었던 작은 충돌은 영석과 후상의 이와 같은 대화로 이끌었고, 그 날의 이야기는 멈추었지만 사람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석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